출가전 '무엇이 진실이냐' 의문
해안스님의 '금강경 강의'
서문 읽는 순간 가슴 뭉클

지역의 불자들을 위해 수유리에 터를 마련한 것을 혜안 스님께서 70년대 말에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지금도 내소사에서는 매년 3월 초하루부터 해안 스님의 기일인 7일까지 특별 정진 법회를 연다. 내소사의 이런 가풍은 이렇듯 뿌리가 깊다. 약간의 침소봉대를 무릅쓰고 시간의 저편으로 거슬러올라 가 보자.

내소사의 창건은 백제 무왕 34(633)년 해구 두타(惠丘頭陀) 스님에 의해서다. 두타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시작부터가 오로지 불도를 닦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 도량이 바로 내소사인 것이다. 그후 조선 인조 11(1633)년 청민(靑旻) 선사가 중건을 하고 구한말(1902년)에는 대강백이자 율사이셨던 관해 선사가 당시 땡초의 소굴로 전락한 절의 면모를 일신했다. 이후 만허, 해안, 그리고 오늘날의 혜산 스님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

은사스님 기리는 '해안집'

그럼 여기서 잠시, 혜산 스님의 성불론에 귀기울여 보자.

"불제자라면 마땅히 성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엄두가 안나면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성불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말이예요. 만약 불가능 요인이 있다면 그건 인과 때문이예요. '본래부처'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의 삶이 어려운 것도 그것 때문이예요. 그런데 선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말이 군소리로 들려요. 하지만 중생의 편에 서서 보면 방편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할(喝) 방(棒)만이 능사가 아니지요.

중생은 아직 깨치지 못한 부처예요. 다만 무시이래로 지녀온 습성 즉 습기(習氣) 때문에 경계에 부딪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말이예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면, 이 또한 어느 생에선가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과보로 알고 먼저 '미안하다' 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평생 살다 보면 최소한 고의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금생의 선행으로 다생의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요.

숙세에 걸친 이 '습기' 라는 걸 쉽게 말하면 '버르장머리' 예요. 이걸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 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성불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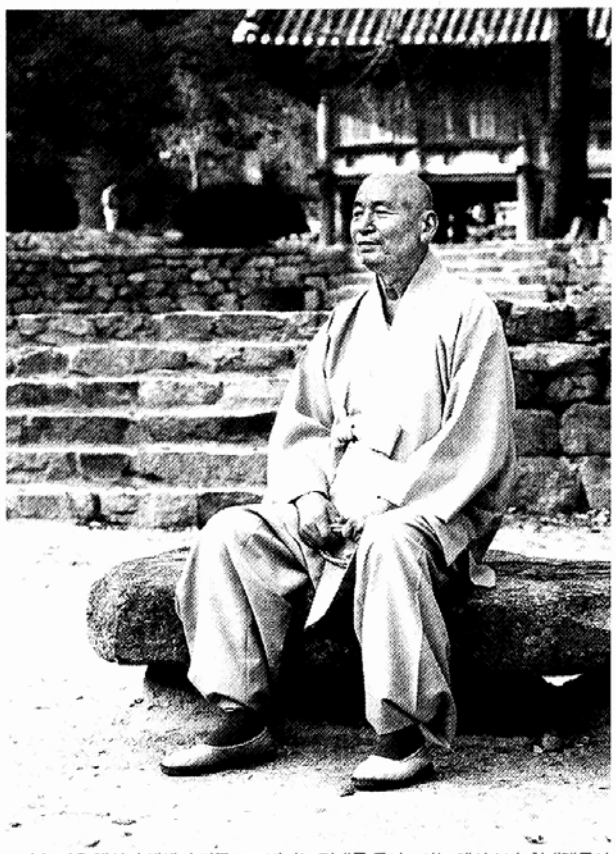
여기서 또 내소사의 가풍 하나를 읽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쉽게 불법을 전한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체득해야 합니다. 체득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싹 가셨으니까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가다가 돌아서고 가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소용없는 '앎' 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일찍이 쉬운 법문을 주창하셨어요. 금강경과 반야심경, 십현담에 대한 해설도 탁월하시지만 강의 노트를 보면 거의 순 한글이예요.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단 말이예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을 설할 수 없어요. 한 예로, 대부분의 〈반야심경〉 번역문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時)…〉를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하는데 해안 스님께서는 '깊이' 라고 번역하셨어요. 단 한자 차이지만 뜻을 새겨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는 단순한 번역 기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계합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법문은 쉽고 시원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바로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법문을 하고, 게송도 한글로 하고 그럽니다."



◇늦가을 햇살이 색색의 단풍으로 빛나는 경내를 둘러보시는 혜산스님. 참배객들이 무언가를 물을라치면 사소한 것까지 자상하게 일러주신다.

혜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 스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두 분의 모습이 포개지기 때문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의 정이 너무도 도톰다는 점이다. 이 또한 내소사라는 절집의 돋보이는 점이다. 어느 절집이고 안 그런 데가 있을까만 내소사는 각별하다.

누구에게나 쉽게 법문

"이번에 은사 스님이 남기신 법문이나 경전 번역·해설을 모아서 〈해안집〉이라는 이름으로 세 권의 책을 냈어요. 입적하신 지 27년만의 일이지요. 20년전 쯤에 1권을 간행했습니다만 거기에 담지 못한 글과 녹음을 이번에 정리했어요. 60년대 초중반부터 스님을 모시면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녹음을 했는데, 스님 가신 햇수가 더할수록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승에 대한 태산 같은 신뢰가 듣는 이의 가슴까지 뜨겁게 한다. 단풍보다 더 아름다운 사제의 정을 내소사에서 본다. 또한 그런 관계가 혜산 스님과 제자들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러나는 인사를 올리고 나니 어느새 저녁 공양 시간이다. 사중 스님들의 배려로 큰스님 곁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스님께서는 반 정도 밖에 안 담긴 밥을 다시 반쯤 덜어내 놓으신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절밥이 꿀맛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님께서는 덜어낸 밥을 다시 그릇에 옮겨 마저 드시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고 분위기를 살피니, 다른 스님들은 이미 숟가락을 놓고 정좌 중이었다. 혹시나 내가 민망해 할까 봐 일부러 밥을 더 드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배보다 가슴이 먼저 불러왔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선행닦아 성불원인 심어야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과거 생의 과보로 알고 반성



◇이제 곧 겨울이 오면 내소사 선원에는 방장산 만큼이나 기개 드높은 수좌들이 도여들 것이다.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자용 스님

불교방송의 어린이프로인 '룸비니동산' 을 듣던 나는 진행자의 간지럽고도 낭랑한 목소리에 그만 웃고 말았다. 저 보살은 목소리가 저렇게 간드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여기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비구니 자용 스님이라고 했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웃었더니 왜 그러냐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냐고 한다. "방송만 듣고선 아무도 스님인줄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요상한 목소리를 내고 그래요? 하하하!!" "그래? 내 목소리가 어때서! 스님처럼 억센 목소리로 방송 하면 애들이 다 도망가겠다. 소위 스님같이 어린이 법회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어쩌누? '눈높이' 몰라? 내가 '룸비니동산' 맡아 진행한지가 언젠데 이제야 듣고 전화하면서 무슨 잔소리람."

맞는 말이다. 방송용 언어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어련히 알아서 했으련만 괜히 한마디 던졌다가 지청구만 들었다. 스님은 중앙승가대학 선배다. 선배 스님이지만 내겐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다. 오래 전 여수포교원에 계실 때 여름불교학교를 도와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포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넘쳐나든지 내가 그 불길에 델 것만 같아 그만 뒷걸음치고 싶었을 정도였다. 스

'룸비니동산' 의 목소리
스님 나서면 만사형통

님은 포교원의 모든 스케줄과 어린이·중·고등법회와 청년법회, 거사법회까지 보살피고, 불교도서관내에 방과 후 공부방까지 운영하며 아이들 간식과 늦은 밤 야식까지 손수 만들어 먹일 정도로 의욕이 대단했다. 새벽시간엔 입시생의 고민을 들어주느라 깔아놓은 이불 위에 잠시 꽃잎처럼 몸을 뉘었다가 바로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철인 삼종경기가 아니라 철인 10종 경기에 출전한 사람 같았다. 여수 근처에 있는 사찰들의 법회까지 봐주러 다니고 있었으니 내가 놀란 것은 당연했다. 열정에 감동한 나는 몇년간 들락날락하며 여름불교학교 일을 도와드렸다. 그 후 스님은 전주 귀신사를 거쳐 지금은 평창 극락사에 계신다.

작년 겨울에 그곳을 찾아갔다. 낡고 퀴퀴했던 유치원을 새로 신축하여 원생이 130명이 넘는다고 했다. 평창은 아주 작은 곳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니다니! 놀랍다고 하자 자용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여름불교 할 때는 300명쯤 모이거든. 그 녀석들 절반은 교회 다니는데 여름불교학교만 하면 와. 난 그게 굉장히 신이 나요! 내가 극락사 오기 전엔 다 여름성경학교에 갔던 애들이니 해마다 녀석들을 극락사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게 환희심 날 일 아냐?"

스님은 마치 고만고만한 아이들과 같은 말투로 신이 나서 말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인지 이럴 때의 스님은 정말 아이같다. 유치원을 한바퀴 돌고 나자 자용 스님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고 바람을 말했다.

"불교계에서 교구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종립학교들이 곳곳에 있었으면 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까지만이라도 불자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닌, 수준높은 학교를 세웠으면 해.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텐데… 오겠지, 그런 때가!"

종단의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그 신나는 불사를 이룰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처럼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일까? 스님에게 요새 비슷한 일이 맡겨졌다. 중앙승가대학 부설로 운영되어오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실장이란 소임을 맡게 되셨다. 신문에서 운영부실과 재원부족,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니 그 대책으로 아마 스님에게 맡긴 것 같다. 92년부터 그곳을 졸업한 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최고의 투자와 시설을 갖추었어야 했던 사업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던 바



다른 학교와의 경쟁력에서 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님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본 궤도에 올려 놓을 지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힘이 되어드릴 순 없나 싶어 만났는데 대뜸 하는 말.

"스님, 아는 이들 중에 집에서 노는 사람 있으면 공부하라고 좀 보내라. 직업으론 최고잖아? 보낼꺼지? 그렇게 알겠어! 그리고 요새 엄마들이 문제야, 엄마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부모입네 하면서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라줘.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거든, 이런 사람도 보육교사 공부 좀 해야 한다고 봐. 아이들의 행동 저 너머에 무슨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졸업하면 취직도 다 시켜줄 수 있으니 보내주라,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자용 스님이 나서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벌써 나부터 스님 생각에 공감케 하도록 만들었으니 보나마나 위기의 보육교사교육원은 조만간 많은 불자들로 넘쳐날 것이다. 스님의 그 불타는 정열의 불꽃으로 안암골을 환하게 빛내시리라 믿는다.

서울 반야사 주지

사람을 찾습니다



▪성 명 김종조
▪나 이 41세 (1960년)
▪신 장 173cm (체중 60kg)
▪가출일시 2001년 4월

■특 징 : 스포츠머리 당시 야구모자를 쓰고 다님

"종조야 부처님을 좋아 하니까 혹시 절에 있으면 전화좀 해다오. 찾는 것이 싫으면 찾으러 안가도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엄마는 더 감사드린다. 부디 전화해다오."

어떤 절이던지 스님께서 김종조 보셨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

어머니 김복점

■연 락 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망천) 44번지
TEL. 041) 951-6848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대우경남 APT 203-207
TEL. 031) 674-1961

목초액수액시트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효과 없을 시 환불!



◆판매가
3O매 44,000원/국산
6O매 85,000원/국산
5O,000원/30매 일본산
9O,000원/60매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등)부위에 사용 경쾌하게 합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쾌적하게 하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히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인터넷 : www.gaja.tv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 분(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 선수 / 항상 피곤한 분, 각종 사고 후

가자목초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열

모 집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

참나체험 chamna chehum

하루가 부족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님
등으로 불리는 참나체험

하루면 충분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먼저 공부한 분들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한마음의 바다에서 그대의 업장을 녹여
참나를 발현케 하므로….

그대는 수많은 전생을 통해 수행 해 왔으므로
찰나가 영겁인 진리의 바다에서
하루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영가의 장애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나체험 www.chamna.net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온.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
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
(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조상님들의 영혼을 천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 (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춤마음수련원
心田堂 (구 대광사)